

김직승 사장 문화훈장 인협추천, 문화의 날 서훈



김직승 태양당인쇄(주)대표이사(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가 지난 10월20일 오전 10시 정동극장에서 열린 '2004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김 사장은 그동안 인쇄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인쇄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음은 주요 공적이다.

〈인쇄산업 육성〉

김직승 사장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

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쇄업계의 권익보호와 인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쇄기술 및 인쇄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인쇄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1989년부터 1992년까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중소기업의 위상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함께 아시아 인쇄인들의 권역단

결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인쇄기술포럼'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대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과 인쇄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렸다.

〈출판문화 향상〉

1975년 '도서출판 책세상'을 설립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순수 문학집을 다수 간행했으며,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 400여종을 출판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1년에는 백상출판문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쇄산업 활성화〉

연합회장 재임 시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중업원과 시설 현황, 원부자재 조달 및 경영실태 현황, 당면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인쇄산업의 관련정책 수립 및 관련연구 활동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국내 인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인쇄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쇄공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정요율 산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인쇄기준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및 요율산정 연구'를 수행 후 보고서로 간행, 관계당국과 유관단체 등에 제출함으로써 관련정책 수립시에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사의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최신 인쇄시설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인쇄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크게 절감시켰는데, 현재 자사의 주력품목인 담배 포장지와 각종 지기인쇄의 기술수준은 국내 최고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기업경영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담배인삼공사 설립 100주년 기념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인쇄업계 권익보호〉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부기관 상조회 등의 비영리단체와 대기업, 언론기관 등에서 인쇄업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쇄물 수수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건의하여 개선시킴으로써 인쇄업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1988년에 비영리단체 및 대기업의 인쇄시장 침투를 규탄하기 위해 여의도 광장

에서 인쇄업계 종사자 1만5천여명이 모인 '전국 인쇄인 생존권 수호 쫓기대회'의 위원장을 맡아 인쇄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또 조달청 인쇄요율의 현실화 요청, 표준소득을 및 산재보험요율 인하, 인쇄기자재 관세감면 등의 세제 개선건의, 사내 직업훈련 적용비율 인하, 오프셋 인쇄기의 수입자유화, 상업인쇄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의 경영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인쇄업계와 연관된 각종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여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합 명칭과 한

사로 초빙, 세미나와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신장을 꾀하였으며 국내 인쇄산업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한 영문 브로슈어와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제작, 주한 외국대사관과 해외무역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한국 인쇄에 대한 인식제고를 꾀하고 인쇄물 수출증대를 도모했다.

〈다양한 사회활동〉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재단 이사, 서울새문안로타리클럽 회장, 한국제외동포정책연구원 이사,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인쇄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을 건의하여 CD롬 등의 전자인쇄물을 단체수익계약 품목으로 지정받게 함으로써 인쇄업계의 수익증대와 인쇄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했다.

〈인쇄물 수출진흥〉

인쇄물의 적극적인 수출증대를 꾀하기 위해 1989년 인쇄수출진흥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수출관련 제반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인쇄물 수출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인쇄물 수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인쇄물 수출증대와 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KOTRA 수출업무 담당자와 인쇄업체의 수출 실무자 등을 강

보성교우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생각으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 벤처센터 설립기금, 보성고등학교 발전기금, 인쇄문화회관 건립기금, 대한인쇄연구소 설립기금,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등을 통해 후진양성과 사회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와함께 공장 소재지 인근의 안양연현초등학교에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인근 노인정의 난방비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장홍일 기자)